

* 2019.11.28.(목) 09:00부터 보도 가능

금융위원회·특허청·지방은행·보증기관
업무협약 체결식 및 『제2회 IP금융포럼』

- '19.11.28(목) 08:50~13:00, 63컨벤션 센터 4층(라벤더홀) -

환영사

특허청장

※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< 인사 말씀 >

□ 여러분 반갑습니다.

특허청장 박원주입니다.

□ 오늘 존경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,

멀리서 참석해 주신

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

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

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

지방은행 은행장님과 금융권 여러분을 모시고

IP금융의 지방 확산을 위한

「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」 및

「제2회 IP금융포럼」을 개최하게 되어
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IP금융 발전을 위해

금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

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,

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발제자 여러분들께도

감사드립니다.

< 지식재산 금융의 중요성 >

□ 내외빈 여러분!

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
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며,
혁신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
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

- 혁신금융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
영국 산업혁명을 촉발한
와트의 증기기관은 '모험자본가'인 볼턴의
혁신적 투자로 상용화되었고,
- 혁신금융비전선포식에서
대통령께서 말씀하신바 같이,
에디슨의 백열전구 특허가
성공을 거둔 이유는
JP모건으로부터 대출과 투자를
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□ 그러나, 우리나라는
주요 선진국처럼 혁신자본이
활성화되지 못하고
부동산과 신용도 중심의 금융이
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* 우리나라 中소자산 담보대출비중('18. 금융위) : 부동산 94%, 동산 및 기타 6%

<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의 노력 >

□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
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에서는
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
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.

□ 지난해 금융위와 특허청이 함께 마련한
「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」을 계기로
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
업력이 짧아 신용이 낮은 기업도
지식재산을 활용하여
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○ 먼저 양적으로는
IP담보대출이 국책은행은 물론
5대 민간은행*으로 확대되고,
신규 대출규모도 크게 증가였습니다.
'17년 866억원, '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
담보대출이 '19년 10월 기준
2,36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.
이는 전년 연말대비 3배**에 이르는 성과입니다.

* '19년 5개 민간은행(신한, 국민, 우리, 하나, 농협은행) IP담보대출상품 출시

** ('18) 63개 기업, 884억원 → ('19. 10) 372개 기업, 2,360억원

- 또한, 올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특허권 담보를 활용하여,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*에도 대출을 적극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%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54개사 조사결과, 우량등급(BBB-이상) 기업보다, 비우량등급(BB+)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발(49개사, 조사기업의 90.7%)

- 그러나,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P금융지원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 왔습니다.

최근 5년간 IP보증·담보·투자금액의 68%*가 서울·경기권 등 특정지역에 공급되어 지역적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* 특허청 IP가치평가연계 수도권 공급비중('15~'19.10, %) : IP보증(53.6%), IP담보(66.2%), IP투자(79.2%)

- 그렇다고 지방에 혁신의 씨앗을 가진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.

한 예를 소개하자면 충북 청주에 소재한 이차전지 설비업체 (주)애플러스는 국내외 핵심특허 32건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받고,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'17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였습니다.

- 이제, IP금융이라는 따듯한 온기가
지역의 중소·벤처기업까지
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
오늘 6대 지방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은
IP금융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
소중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.

< IP금융 현황 및 그간의 노력 >

☐ 내외귀빈 여러분!

지식재산권은 본질상 재산권으로
대출의 담보물로 활용될 수 있고
투자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일반 상품과는 달리,
금융시장에 쉽게 활용되기 어려워
많은 제도적 개선도 필요했습니다.

☐ 먼저, 지식재산은

불안전 경쟁시장을 형성*하는
무형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
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되지 못하는
한계가 있었습니다.

* 거래가 적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시장정보 획득이 어려움

- 다행히, 올해 7월부터
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
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
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
제값 받고 거래될 수 있는
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- 또한, IP거래시장이 없었던 탓에
담보대출 부실시, 담보IP 매각이 어려웠으나,
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 도입을 위한
발명진흥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
관련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.

* 법적근거 : 발명진흥법(제32조의2~3), 시행령(제15~17조)

* '20년도 예산확보 : 75억원(정부 37.5억원, 은행 37.5억원)

- 금융위·법무부·특허청 협업을 통해
선진형 동산담보대출을 위한
일괄담보제 법안이 입법예고* 되어,
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이
금융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('19.11.5~12.16, 법무부)

< 앞으로의 정책방향 >

□ 특허청은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
IP금융확산을 위한 당면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첫째, IP담보대출을 위한 회수지원사업을
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- 내년 초 회수지원전문기관 선정을 통해
회수지원기구를 출범*하고,
담보IP 매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
은행권과 함께 회수리스크를 경감하겠습니다.

* 정부·은행권 출연('20.1월), 회수지원기구 출범('20.1~2월)

□ 둘째, 역량 있는 민간은행 등을 중심으로
발명의 평가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은행이 보유한 평가인력·사정에 따라
금융권 스스로 IP가치평가와 담보대출이
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* 평가기관: ('19) 20개(공공 11, 민간 9) → ('20) 23개(공공 11, 민간 12)

□ 셋째, 은행의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
평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- 평가기간과 비용을 간소화한
약식형 가치평가*를 적극 제공하고,
IP금융이 충분히 공급되도록
가치평가 지원기업 수**를 확대하겠습니다.

* 평가비용/기간 : (현행) 500만원/3주 → (개선) 300만원/2주

* 지원기업 수 : ('19) 930개사 → ('20) 1,200개사

□ 넷째, IP금융분야 인력양성을 위한
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- IP금융 Best Practice*를 발굴하여
금융권과 공유하고,
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보급하여
금융기관 역량제고에 힘쓰겠습니다.

* IP금융 유형별(IP보증·담보·투자)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IP금융포럼을 통해 배포

□ 또한, IP금융포럼에서 논의된
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
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습니다.
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< 맺는 말씀 >

□ 내외귀빈 여러분!

- 지식재산이라는 혁신자산과
금융이라는 자본시장이 어우러질 때
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,
함께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.

□ 특허청은

IP금융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
지방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여러분과
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.

- 다시 한번 「업무협약 체결식」 및
「제2회 IP금융포럼」에 참석해 주신
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